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학에 대한 이해

이원일(영남신학대학교/교수)

leewil@hanmail.net

한글 초록

발도르프 학교가 설립된 이후 100년을 지난 시점에 발도르프 학교가 우리의 교육현실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루어진 내용은 발도르프 학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학이다. 그리고 신지학에 기초한 하나님이해, 인간이해, 교육이해 등이다. 그의 하나님 이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유물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 로고스에 대한 의미 이해, 신비적 관계성의 근원되는 그리스도 등이다. 그의 하나님 이해는 인간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의 인간이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몸의 본성, 혼의 본성, 영의 본성 등이다. 영의 본성은 비가시적인 대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말한다. 영의 눈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적 영성이며, 이를 슈타이너는 신비주의적 영성이라고도 한다. 그가 말하는 신비주의적 영성의 특징은 수도원적인 탈현실적 영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처럼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의 상호관계성을 의미하는 통합적 영성을 말한다. 그가 말하는 통합적 영성에 의한 교육의 특성은 교육예술이다. 통합적 상상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교육예술은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교육 현실에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교육예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영혼생활, 통합적 교육, 자유지향 교육, 그리고 개인성 교육 등 이다. 영혼생활은 영혼의 발달을 위해서는 지성, 감정, 의지의 발달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한다. 통합적 교육은 이야기, 놀이, 예술, 그리고 교과목들이 통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말한다. 개인성 교육은 개인의 독특성을 알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의식을 계발하는 교육을, 발달교육에서는 인간의 발달 과정을 기초로 하는 교육이어야 함을 각각 언급하고 있다. 신지학의 관점에 의하면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목적은 무엇보다 기독교 영성 발달에 두어야 한다.

〈 주제어 〉

신지학. 영적자아. 영의 눈. 상상력. 교육예술

I. 들어가는 말

발도르프 학교가 1919년에 설립된 이후 100년을 지난 시점에서, 발도르프 학교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발도르프 학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상가인 오스트리아 출신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핵심 사상인 신지학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가 미진한 신지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발도르프 학교가 통합적 상상력에 기초하는 교육적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준 것은 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상상력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물음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신지학이란 무엇인가? 슈타이너(1996, x: 2016a, 6)는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감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초감각적 차원에서 밝히려는 신적 지혜(divine wisdom)를 신지학(神智學, Theosophy)이라고 한다. 신지학은 인간의 본질을 영적 본질로 이해한다. 따라서 영학(靈學, spiritual science; Steiner, 1996, 3) 이라고도 한다. 영학으로서의 신지학은 인간의 영적 본질의 관점에서 인간 이해 및 인간의 사명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다.

신지학을 말하는 슈타이너(2016b)는 문화가 괴테의 체험적 인식론과 삼중적 인간론, 그리고 힌두교적 우주관 등에 영향을 받아 비교적 기독교(esoteric christianity)의 관점으로 그의 사상을 전개해 나간다. 비교적 기독교는 일종의 신비주의적 기독교이다. 그러나 그의 신비주의적 기독교의 특징은 의외로 “종교문헌이 얼마나 진실에 입각한 것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실한가를 알 것”(156)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종교문헌’이란 성경을 말한다. 성경을 문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슈타이너의 신비주의적 관점이다.

슈타이너(2016b, 167)가 말하는 신비주의적 기독교는 신비주의적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슈타이너는 당시에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발견들과 발명들로 말미암아 물질문화 속에 매몰되어 버린 영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신비주의적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난해한 슈타이너의 신지학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의 신지학은 그가 말하는 신비주의적 기독교 영성이다. 그의 신비주의적 영성에서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신지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있어서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힌두교적 요소들을 부각하거나 비판의 주제로 삼는 것은 의미 탐색이라는 논지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교육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그의 사상, 이에 의한 영향, 그리고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II. 하나님 이해

슈타이너(2016b, 9, 26)에 의하면 자신의 신지학은 바로 요한복음을 자신의 시대에 재현한 것이며, 요한복음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 그의 신지학이다. 따라서 그가 강의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의 신지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유물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

신지학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해석한 슈타이너(2016b, 15)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는 구절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유물론을 비판한다. 그

에 의하면 유물론자는 초감각적인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초감각적인 눈을 잃어버린 사람은 단순하고 소박한 인간을 넘어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성경 속의 영적인 의미는 부정된다.

슈타이너(2016b, 18-20)는 헤겔이 유물론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것도 성경을 유물론적으로 왜곡한 것에서 찾고 있다. 그가 말하는 성경에 대한 유물론적 왜곡의 대표적인 것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실재 물질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는 공재설과 창세기의 하루를 오늘날의 물리적인 시간 단위인 하루로 이해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그가 살았던 당시에 성찬에 대한 가톨릭의 견해와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한 견해에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당시의 계몽주의 입장과 자연과학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슈타이너(2016b)가 성경을 유물론적으로 왜곡한 것을 비판한다고 해서 과학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신앙과 과학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과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신앙임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과학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그리스도의 충동”(201) 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충동이란 마치 씨앗의 힘과 같다. 땅 속에 있는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서 언젠가 과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씨앗과 같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기독교가 없었다면 철도도 증기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기묘하게 들릴 테지만, 모든 일들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203)는 것이 그의 과학에 대한 관점이다.

오늘날의 과학 발달이외에 현대 문명의 모든 기초도 바로 기독교임을 말하고 있다. 슈타이너(2009)의 신지학에는 기독교 중심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 그의 신지학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증 있게 다루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골고다의 기적이 없었다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서, 인간의 육체적 몸은 타락하였고 ... 지구상에서 인류의 존재는 끝나버린 것”(39)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슈타이너에 의하면 골고다의 기적은 인류를 구원한 우주적 행위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삶의 의미를 지닌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과 관련된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선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한다”(Steiner, 2009, 103, 105)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하는 문과도 같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슈타이너에게서의 부활은 죽음과 새로운 삶의 문지방 역할을 한다.

정리하자면 슈타이너의 당시의 과학에 대한 비판은 그리스도의 충동이라고 하는 영적인 특성을 경시하고 유물론적이며 물질주의적으로 그리스도와 성경을 왜곡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영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해 될 때 요한복음서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2. 로고스의 의미

로고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슈타이너는 로고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에 대한 문헌학적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리스 철학에 영향 받은 알렉산드리아 필론의 로고스 개념이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비판을 증명하기 위해 슈타이너는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의 일꾼”에서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제시하고 있다. 로고스는 그리스적 교양을 지닌 자에 의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미 잘 알려지고 통용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로고스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로고스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생활을 알아야 함을 말한다. 주위 환경을 관찰하는 것과 더불어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슈타이너(2016b, 23-25)가 제시하는 독특한 해석은 인간이 동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간 자신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자신의 체험을 안에서 바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는 언어가 필요하며, 이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 부여 되었으며, 처음에는 불완전한 침묵의 존재이었지만, 점차 로고스 또는 말을 구사하는 존재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마치 식물의 씨앗, 꽃, 그리고 열매의 과정으로 진화되어 나가는 것과 같다. 슈타이너(2009, 121-129)에 의하면 성령강림절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절기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언어는 단순하고 공허한 언어와 언어 숭배적인 관점 이 둘을 넘어선다. 성령의 언어는 자신을 고무시켜 자신의 혼을 채우는 언어이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달은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언어이어야 한다.

그러나 슈타이너(2016b, 26, 245, 246)에 의하면 침묵의 인간에서 말로 표현하는 인간으로의 진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씨앗에서 출발하듯이 인간의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인간도 말의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다. 언어 또는 말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저자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로고스 이해는 신비주의적이면서 감정 속에 잠기는 “감정의 관점”을 특징으로 한다. 로고스 이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 전체를 감정의 관점으로 받아 들여야 함을 말한다. 그의 요한복음 강의도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적 이해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이다.

슈타이너(2016b, 215-220)의 감정 관점에 의하면 신비주의적 영성에서는 감정체험이 중요하다. 그는 신비주의적 영성에서 일곱 가지 중요한 감정체험을 말한다. 높은 자가 낮은 자 앞에 몸을 낮추면서 ‘나는 그대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세족의 감정,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 대해 같은 고통을 느끼는 채찍 맞기의 감정,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가장 성스러운 것과 자아의 모든 것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가시관의 감정, 자신의 몸을 바깥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대상인 듯이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 말 할 수 없게 되는 십자가의 감정, 한 순간 모든 가시적 세계 앞에 검은 장막이 내려오고 시계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죽음과 그 이후 지옥과 같은 악의 쓴 뿌리를 맛보는 감정, 자신이

흠에 묻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구의 일부분으로 확대되는 매장과 부활의 감정, 뇌의 활동 없이도 사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으며 표현하기 어려운 승천의 감정 등이다.

감정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비주의적 영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신지학으로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뿌리에 존재하는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뿌리에 존재하는 깊은 의미는 신적이며 영적인 것을 말하며, 가시적 세계의 뿌리에 존재하는 불가시적인 세계를 말한다. 그는 이를 ‘로고스’ 또는 ‘말’이라고 한다(Steiner, 2016b, 54). 인간을 비롯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로고스로 말미암았다. 모든 피조물은 로고스의 가시적 형태이다.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는 영적이며 혼적인 존재가 있으며, 이의 작용으로 피조물은 생령이 된다. 이러한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신지학을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신지학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신비주의적 영성은 영지주의(Gnosticism)와는 차이가 있다(정희영, 2017). 로고스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존재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며 “그리스도를 물질의 근저에 존재하는 초감각적, 불가시적인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언어가 살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아갔다는 사실이 중요”(Steiner, 2016b, 61) 하다. 그에게 있어 신비주의적 영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 14)라는 구절을 분명히 인정한다. 이 구절에 기초하여 가시적 세계에 비가시적인 영적 존재로서의 로고스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3. 신비적 관계성

육신을 입은 나사렛 예수로서의 로고스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슈타이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나다”(Steiner, 2016b, 63)의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근원이며 우주의 근원이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8:58)는 구절에 대하여 “아브라

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가 있으니라”라고 해석한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8:12)라는 내용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아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해석한다. 슈타이너(2016b)에 의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는 선언이 신지학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에 의하면 ‘나는 나다’의 존재인 그리스도는 “유일하며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76, 136)이다.

슈타이너(2016b)에 의하면 ‘나는 나다’의 그리스도는 존재의 근본으로서 인간을 ‘나는 나다’라고 하며 자유롭게 하는 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제각기 개별적인 존재로서 ‘나는 나다’를 느낄 수 있는 충동을 부여하는 존재”(62) 라고도 한다. 구약의 집단적 자아에서 신약의 개별적 자아의 진화에 의해서 드러나며,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뚜렷하게 개별적 자아를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각성시키는 것”(82)이다. 개별적 자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의 사명이라는 것이 슈타이너의 입장이다. 인간으로서의 개별적 자아를 언급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막10: 29)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개별적 자아를 가진 자이다. 이 개별적 자아는 무엇보다 영적인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자이다. 개별적 자아는 혈통으로 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10: 30) 이다.

한 개인이 개별적 자아를 가진 자로서 자유로운 자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슈타이너(2016b)는 “그리스도를 보라 것처럼 되려 하라. 그의 뒤를 따르려 하라. 그렇게 하면 이미 계율이란 필요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로운 자아가 선한 것, 올바른 것을 실천하려 할 것”(90) 입을 말한다. 여기서 ‘계율이 필요하지 않고’의 의미는 방종이 아닌 계율의 극복으로 말미암는 자율을 말한다.

개별적 자아에 대한 그의 언급은 그의 성령 이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나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독특성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살아가게 한다(Steiner, 2016b, 62). 성령은 관계의 갈등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영이다. 성령강림절은 해방의 잔치이다. 이

와 관련하여 “성령강림절은 인간 영에 대한 해방의 상징으로서 자유를 위한, 그리고 자유의 자각을 위한 인류의 투쟁의 상징”(Steiner, 2009, 28) 이라고 말한다. 자유롭게 하는 성령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라는 의미를 추구하는 영이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Steiner, 2009, 139-142). 육체적인 본성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이다. 성령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운 개인으로 변형되어진다.

슈타이너(2016b, 52)가 말하는 영적인 또는 신비적인 차원은 초월적 차원이 아닌 관계적 차원을 의미한다. 그의 가나의 혼인 잔치(요2:1-12)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여러 민족과 부족들이 모여 사는 혼혈아 지역인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은 영적인 사랑의 특성을 말해 준다. 갈릴리는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사랑의 공동체를 예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해 준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바로 다가 올 시대를 준비할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요4:1-26)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혈연에 의한 결혼만이 아니라 상속적인 신분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다.

혈연과 신분제를 넘어서는 개별적 자아는 성령강림절과도 관련된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성령강림절의 사상은 ‘불의 혀’로 구체화 되며, 이로 말미암아 ‘여러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오늘날의 각국의 외국어로 말한 것에 강조를 두기 보다는 “포용력과 이해력”(Steiner, 2009, 89; 2016b, 146, 150; 손문, 2019)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조된다.

슈타이너는 포용력과 이해력을 종교와 관련해서 해석한다. 기독교는 타종교들을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종교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성령 강림절에 여러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는 포용의 종교, 화해의 종교, 관용의 종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슈타이너(2009, 139)에 의하면 이것이 성령강림절의 사상이다. 성령은 종교에 대해서도 한 부분에만 속해 있는 영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관계된다. 성령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넘어서서 차

이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통합적인 일치의 영이다.

또한 슈타이너가 말하는 개별적 자아는 영적 자아이며 ‘눈을 뜬 자’이다(요9:6,7). 예수가 그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는 구절에 대하여 슈타이너(2016b)는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에서 슈타이너는 그의 독특한 우주 진화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그리스도는 자신의 진정한 신체가 지구”(142, 210)라고 말한다. 지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땅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옷이다. 바로 이런 관점이 그의 신비주의적 영성이다.

인간은 땅에서 나는 밀로 빵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것이며, 밭로 땅을 밟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 것은 곧 그 자신으로 치유한 것임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연은 단순히 과학적 탐구의 대상만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로고스의 본질이 지구에 스며들어 있다는 신비주의적 관점으로도 자연을 이해 할 수 있음을 슈타이너(2016b, 149)는 보여 주고 있다. 그리스도가 지구의 영이며, 지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지구와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의 존재임을 말한다. 그리고 신비적 관계성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관계성의 존재이다. 그의 신비적 관계성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며 생태적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

Ⅲ. 인간이해

슈타이너(2016b, 40)에 의하면 말하는 능력은 처음에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태초에 언어로서의 말이 있었다. 그 말의 내부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인간의 빛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언어 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언어 능력 또는 로고스의 능력은 인간이 창조된 시기에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식물이 씨앗에

서 성장하는 것과 같다. 언어 능력이 인간에게서 성장해 나간 것이다. 더 나아가 인체도 로고스인 말에서 태어났다. 인체가 오늘날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은 창조 때에 ‘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사람의 몸의 기원은 말이라는 의미의 로고스이다.

그에 의하면 말로서의 로고스에 의해 우선 형성된 인간 본성은 인간 몸으로서의 신체(physical body)이다. 인간 신체에 동양의 기(氣)에 해당하는 에테르가 결합된 것이 생명(etheric body or life body)이다(Steiner, 1996, 7). 생명은 인간에게 희·노·애·락 등의 감각적이며 집단적 혼(魂)에 해당하는 아스트랄과 결합하여 아스트랄체(astral body)가 되고, 마지막으로 영(靈)에 해당하는 자아(human I or human ego)와의 결합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한다(Steiner, 2016b, 41; 1996, 4-14). 인간 본성들은 관계성에 의한 결합의 과정에 의해 오늘날 인간의 계량적인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자면, 인간 본성은 신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 등의 네 가지 본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네 가지의 인간 본성들을 그의 신지학에 따라 분류하자면, 인간의 본성은 몸, 혼, 영 등이다(Steiner, 1994, Chapter 1; 2016a, 22). 이 중에서 몸이란 자신의 존재를 가지적으로 나타내는 신체를 말한다. 에테르체는 여기에 포함된다. 혼이란 인간의 감성적인 특성을 말한다. 자아는 영의 본성을 말한다. 영이란 사물이 그에게 제시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물 스스로가 말을 걸어오는 내적인 자기를 말한다.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요소들이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존재로서 서로 얽혀 있다.

1. 몸의 본성

슈타이너(2016a, 24, 25)에서의 몸이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관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인간의 몸은 식물적, 광물적, 동물적 요소 등의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신체라고 한다. 인간의 신체

는 식물처럼 성장하고 번식하며, 광물처럼 자연적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동물처럼 환경과 대상을 지각하고, 이에 기초하여 내면에 체험을 형성한다. 식물적, 광물적, 동물적 요소들로 구성된 신체에 기(氣)에 해당하는 '에테르체'가 작용함으로 '생명체'가 된다.

에테르체는 “물질적인 소재나 힘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소재나 힘을 생명체로 바꾸는 독립적이며 현실적 본성”(Steiner, 2016a, 31)이라는 점에서 변형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신체를 생명체로 변형하는 힘이 에테르체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체와 동물의 생명체와의 차이는 인간의 두뇌 활동에 있다. 인간 두뇌의 특징은 세밀한 내적 구조에 있다. 인간 두뇌의 세밀한 구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은 단순히 동물과 비교할 수 없으며, 인간의 두뇌는 단순히 신체적인 차원을 벗어나 영적 발전과도 연관될 정도로 신비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몸의 차원에서 이미 사고의 능력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혼(魂)의 본성

슈타이너(2016a, 28, 41)에 의하면 혼은 인간의 지상 생활의 주역이며, 인간 혼의 본성은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등의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혼의 본성은 인간의 내면세계라는 점에서 몸의 본성과 구별된다. 슈타이너는 혼을 하나의 구체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이를 혼체라고 하며 아스트랄체라고도 한다. 또한 혼을 연구하는 사람을 심리학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혼을 인간의 심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슈타이너(2016a, 26-28, 40)는 감각적 지각과 이에 대한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혼을 감각혼이라고 한다. 시력을 통하여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개별적인 지각을 한다. 인간의 몸의 감각을 단순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감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의 개별적인 지각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을 말한다. 인간의 혼은 감각적 지각을 구

체화한 지각의 결과인 감정과 관련된다. 혼은 자신의 내면에 공감과 반감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희·노·애·락 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이다(26-29, 194). 인간은 혼으로 말미암아 감정과 자기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또 다른 세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의 의지와 결부된다. 인간의 혼은 의지로 말미암아 밖으로 표현되어지며, 의지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외부 세계에서 행동으로 살아나간다. 외부세계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이성적으로 생활하게 된다. 슈타이너(2016a, 29, 37)에게서 인간의 최고의 감정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성찰적인 사고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감정이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사고하는 고차원적 혼을 오성혼이라고 한다. 오성혼은 사고력을 특징으로 하는 이성의 본성을 말한다. 그러나 오성혼은 감각, 충동, 결정에 휩쓸릴 수 있는 혼이다. 영원한 진리는 개인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과 희·노·애·락 등을 제거한 것이다.

영원한 진리가 자리매김 하는 혼의 부분을 의식혼이라고 한다. 의식혼은 혼의 핵심이며, 인간 의식의 핵심이다. 인간 몸의 중심이 두뇌이듯이, 인간 혼의 중심은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다(Steiner, 2016a, 41-43). '나'라고 하는 자의식은 자신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하는 의식이다. 이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인간의 몸과 혼을 다스리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나'라고 하는 자의식으로서의 의식혼이 영적 자아로 충만할 때 충동, 욕망, 정욕을 비롯한 인간의 몸과 혼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3. 영의 본성

슈타이너(2016a, 31)에 의하면 영의 본성은 영적 자아, 에테르령, 영 인간 등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영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가운데 물질 형태 이외에 생명으로 가득 찬 영적인 모습을 지각할 수 있다"고 함과 같이 모든 피조물에 존재함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 영의 본성은 의식혼을 의미하는 인간의 '나'라고 하는 자의

식 속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영적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의식혼이 근본적인 영적 존재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인간 영의 본성은 '영적 자아'가 된다. 영적 자아로서의 인간의 영은 '사고하는 영'이다. 자기 의식적 지성을 포함하는 영적 차원의 자아로서의 사고하는 영이다.

영의 본성으로서 두 번째의 요소는 기에 해당하는 생명의 기운인 에테르체로 말미암아 인간 자아인 의식혼과 영적 자아가 결합한 것을 에테르령이다(Steiner, 2016a, 47; 2016b, 199). 슈타이너는 인간 자아인 의식혼과 영적 자아의 결합을 '결혼'이라는 비유로 표현하며, 이를 영적 결혼이라고 한다. 영적 결혼으로 말미암는 에테르령은 변화된 생명체로서의 생명령이라고도 한다.

영의 본성으로서 세 번째의 요소는 '영 인간'이다. '영 인간'은 생명의 핵이다. 사고하는 영으로서의 인간의 영은 자신의 감각세계인 내면세계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각세계인 내면세계가 마치 외적인 현장처럼 영적 모습으로 뚜렷하게 눈앞에 펼쳐짐을 볼 수 있다. 이를 슈타이너(2016a, 35, 45)는 "영의 눈"이라고 말한다. 영의 눈을 달리 표현하자면 '눈이 열린 자'를 말하며 '직관'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자의식으로서의 '나'와 결합한 영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라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내면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자를 말한다.

따라서 슈타이너에게서의 영의 본성은 볼 수 있는 능력인 직관과 관련된다. 여기서 직관은 가시적인 대상을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감각적 지각은 두 사람이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직관은 비가시적인 대상을 볼 수 있는 가시적 능력을 말한다. 직관을 가진 영적 자아를 슈타이너는 '영 인간'이라고 말한다. 영 인간은 직관으로 말미암아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슈타이너(2016b, 179, 180)에 의하면 영의 눈이 있는 자는 눈이 열린 자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보는 자이다. 슈타이너는 빌립이 예수를 보고자 한다고 했을 때(요12:21) 예수가 예언자 이사야를 언급(요12:38-41)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예언자 이사야가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사6:1)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본 대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요12:41)임을 말한다. 신지학의 관점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늘 보이는 존재”(180)이기 때문이다. 신지학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181)이다.

슈타이너(2016b, 240)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어떻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한다. 비가시적인 대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내적 힘에 의해서이다. 그가 말하는 내적 힘이란 다름 아닌 ‘신앙’이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단순히 믿는 힘이 아니라 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신앙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유물론적 세계만을 현실이라고 하지 않게 된다. 신앙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볼 수 있게 된다(요20: 29).

신앙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라는 예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1:11)는 성경의 말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슈타이너(2016b, 241)에게 있어서 신지학의 사명은 바로 “보이게 하는 것”에 있다. 이는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운동이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사명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를 세계사적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IV. 교육이해

슈타이너의 인간이해에 의하면 생명의 핵은 ‘영 인간’이다. 영 인간은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내면세계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과 대상의 내면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자이다. 신지학에서 말하는 영 인간과 슈타이너에 의한 발도르프 학교에서 강조하는 상상력은 비가시적인 대상

을 마음의 눈(mind's eye)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슈타이너와 그에 의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상상력(imagination)을 강조하고 있다(Steiner, 1996, 19, 20; Petrash, 2018, 68 재인용; Steiner, 2008, 262; Jaffke, 2000, 77; Querido, 2019, 94, 131; Petrash, 2018, 27, 42, 44, 48, 68, 72, 82, 92, 99, 102, 108, 111, 228, 235, 250, 253). 상상력은 마음이라는 화판에 그림(mental pictures)을 그리기도 하고, 그려진 그림을 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신문철, 2012; 이현철, 2016; 유은희, 2019). 내러티브 교육원리의 특징과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상상력을 기초로 하는 발도르프 학교는 이야기, 놀이, 예술 등을 통하여 인간의 전체성, 통합성, 개인성 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예술을 강조하고 있다. 슈타이너의 교육이해 특징은 교육예술이다.

1. 영혼생활

슈타이너(1996, 60, 69)는 그의 교육예술에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학교는 종교를 기초하지 않거나, 종교를 가르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러나 영성과 일상을 이분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그는 새로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과연 인간의 본성인가?”(Steiner, 2015, 125)라는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해, 인간이해, 그리고 교육이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Steiner, 1996, 51, 60).

슈타이너(1996, xiv; 2015, 33)의 신지학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과학적 차원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보다는, 영적차원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신비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이분법적이 아닌,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예수의 신성과 인성과 같이 상호관계성을 지니는 것으로 여기듯이, 인간의 영혼과 이성(머리), 감성(가슴), 의지(손) 등을 이분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인간의 영적발달을 위하여서는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등의 세 가지 차원의 발달과 상호관련해서

교육해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인간 영혼의 차원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영혼의 발달을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사고), 감정, 의지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슈타이너(2015, 40, 41)는 “영혼생활”(Petrash, 2018, 258, 257-281)이라고 한다. 영혼생활이란 인간의 영혼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등을 통하여 표현되고, 그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등은 영혼에 영향을 주는 서로 밀접한 관계임을 말한다. 이를 인간의 발달적인 차원을 고려해서는 “인간 전체성”이라고 한다. 그는 “교육 속에서 인간 전체를 파악하려는 의지”(Steiner, 2015, 45)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인간의 영혼생활이나 인간의 전체성과 같은 슈타이너(2015, 46)의 언급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추상적으로 이해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다. 영혼생활을 위한 인간의 전체성을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한 언급은 교육에서 수업이 지성을 바탕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완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한다. 이는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은 교사, 학생, 그리고 교직원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슈타이너(2015)는 당시에 학생의 심리적 이해를 강조한 헤르바르트의 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헤르바르트의 사고와 사상은 15세기 중반에 이미 그 막을 내린 문화 기간 속에 아직도 꼭 잠겨 있다”(29)는 것이다. 헤르바르트가 비록 스콜라 철학에 기초한 심리학으로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리학은 지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이다. 영혼에 대해서도 완전한 지적적인 차원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간의 감정, 의지, 지성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teiner, 2015, 40; 이주형, 2016). 또한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등에 대한 교육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차원의 표상을 중심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 속에서의 사실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상투어가 되

어서 이해에 이르기 어렵게 되었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2. 통합성 교육

슈타이너(1996, xi, xii; 2015, 87, 88, 115)에게서의 교육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등을 조화롭게 상호작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차원과의 예술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통합성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교육예술이라고 한다. 교육예술이란 교육은 객관적인 지식전수이기 보다는 예술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함을 말한다. 그가 교육예술을 말함은 인간은 직업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전인적이라는 인간이해에 의해서이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은 왜곡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영혼 등의 전인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예술은 우선 인간의 영적인 차원을 비롯하여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등이 예술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예술은 지성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슈타이너(2015, 95)에 의하면 지성은 감성과 함께 교육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사고로 편향하게 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이는 지성이 가장 정신적인 반면에 물질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지성 중심의 교육에 대해 비판적이다. 따라서 영성에 기반을 둔 지성 함양을 위해서는 미학적인 방법으로 감성을 발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 기반 지성교육이다(Steiner, 1996, 34). 유사한 맥락에서 자연 관찰에 대한 경우에도 단순히 객관적으로 자연에 대한 관찰이기 보다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비유 등으로의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념 이해를 위해서도 기존의 개념 이해를 설명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특성들을 알게 함으로써 개념들이 살아 있도록 생동적이고 운동적하도록 할 때 이해에 이르게 된다.

교육예술은 의지함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슈타이너(2015, 123)에게서의 교육예술은 교육을 예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예술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인간의 의지력 향상을 위

해 예술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함을 말한다. 예술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의지가 약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한 이른 나이에 음악, 스케치하기, 그림 그리기 등을 그저 보고 들도록 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95, 96) 라고 한다. 종교, 읽기, 그리고 쓰기조차도 예술과의 통합으로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예술에 의하면 교육은 놀이가 되어야 한다. 슈타이너(2015, 92; 1996, 87)는 교육으로서의 놀이를 강조한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놀이의 본질은 자유이다. 수업도 일종의 놀이처럼 수행되어야 한다. 지적인 것을 미학적으로 놀이처럼 즐기도록 수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교육 예술은 예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교육과정이며, 산수를 배우는데 있어 계산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교육과정이다. 발도르프 교육은 지리 수업이 그러하듯 여러 과목을 통합해 자아와 세계 사이에 리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과학, 인문학 등의 과목들을 융합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Querido, 2019, 84). 슈타이너는 신비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의 장벽을 허물었듯이, 발도르프 학교는 종교, 과학, 그리고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슈타이너에 의해 시작된 초기 발도르프 학교는 교육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교육을 한 것이고, 종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예술을 한 것이다.

3. 개인성 교육

교육예술은 인간의 본성 이해의 중요성과 더불어 교육의 자율권을 강조한다. 슈타이너(2015)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그리고 교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지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이다. 오히려 교육은 “인간은 항상 스스로의 본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자체를 인정 ... 자유로운 시민”(57)이 되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로운 시민은 국가

를 비롯하여 특정 종교의 통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59, 125)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며,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게 쓰기와 읽기 등을 비롯한 교육을 해야 함을 말한다.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삶은 “개인성 의식”(30)을 추구하는 것이며, 개인성 의식이란 자아로서 의식적인 개인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슈타이너(2015)에게서의 진정한 교육이란 “인간의 신체, 영혼, 정신이 내적으로 자유롭게 독립되도록 배려하는 것”(127)이다. 영혼에 대한 교육조차도 교회에 맡겨 버리는 교육이 아니라, 전인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이며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육예술이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미래의 인간은 개개인이 개인적이면 개인적일수록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Steiner, 2016b, 197)임을 말한다. 비유하자면 각종 식물이 각각 태양을 향하여 뻗어 나가는 것과 유사함을 말한다.

인간은 영적인 태양을 향하여 각각 뻗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인간은 ‘나는 나다’의 개별적 자아가 형성된 인간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존재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 인간으로 하여금 “실용적인 삶”(Steiner, 2015, 127)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의 삶 속에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실용적인 삶에 대한 슈타이너(2015, 110)의 언급은 그가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용적인 삶이 포함된 전인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운 삶으로의 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양육해야 함을 말한다.

4. 발달교육

교육예술에 따르면 개인성을 지닌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교육해야 한다. 슈타이너(1994, 53, 54)가 활동하던 시기에 인간의 발달에 따른 교육을 강조한 것은 오

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의 네 가지 본성들의 발달 특성과 교육내용은 조화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네 가지 본성들은 태아 날 때 이미 인간에 내재되어 있으며, 성장 과정에 따라 네 가지의 본성들은 발달한다. 치아의 교체를 기점으로 7년을 주기로 발달한다. 영아기는 신체, 치아가 새로 나기 시작하는 7세에 에테르체, 14세 전후의 사춘기에 아스트랄체, 21세 전후로 자의식 등이 본격적으로 각각 발달한다.

따라서 7세까지는 신체 양육에 중점을 두어 신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의 교육과 모든 감각으로 모든 것을 모방하려는 특성에 따라 모방을 통한 학습이 중요한 시기이다. 신체 양육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슈타이너에 의해 창안된 오이리트미(eurythmie)가 있다. 지성, 감정, 그리고 영혼 등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신체를 활용하여 언어와 음악 등으로 리듬 있게 표현하는 일종의 언어 동작 예술이다(Petrash, 2018, 63). 또한 둥근 원을 그리며 파트너를 바꾸며 춤을 추도록 하는 라이겐(reigen)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상상력을 촉발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에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뒤에 획일적인 도덕적 교훈을 주입하려고 하기 보다는 “어린이의 감정”(Steiner, 2015, 76, 91)을 생동감 있게 해야 한다. 상상력에 의한 개인성 계발을 위해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끝내기, 공백이 많은 인형을 갖고 놀게 하기, 모방해야 할 본보기로서의 모델, 비유, 상징 등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보는 듯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Steiner, 1996, 26, 57).

7세에서 14세의 시기는 지성교육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기 보다는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비롯한 기억, 습관,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미적 감각 함양을 통하여 상징적 의미를 알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추상적 개념 보다는 실제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Steiner, 1996, 69). 14세에서 21세의 시기는 그림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교육내용에서는 비판적 지성을 함양하고 자율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Steiner, 1996, 55-63; 2015, 72, 81). 비록 평생교육적인 차원의 교육내용은 경시하고 있지만,

그의 교육예술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V. 나가는 말

교육개혁은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 발도르프 학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슈타이너의 신지학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의 신지학을 살펴봄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난해함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신지학에 기초한 발도르프 학교는 가시적 능력을 의미하는 상상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신비적 관계성의 하나님 이해와 인간이해와 더불어 상상력에 기초한 마음의 눈을 통해 마음의 그림을 읽고 볼 수 있는 이해의 사람으로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관계성과 변혁적 특성을 지닌 통합적 상상력을 생동감 있게 하기위해 교육예술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예술은 내러티브에 해당하는 이야기, 비유, 상징 등을 비롯하여 개인성, 자유, 놀이, 그리고 신비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의 장벽을 허물어서 종교, 과학, 그리고 예술 등의 경계를 넘어선 통합 교육과정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의 교육방법론인 교육예술은 오늘날 기독교교육에서도 반영되어 나가고 있는 경향이다.

교회학교를 비롯한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미래의 교육개혁은 교육예술을 더 깊고 다양하게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발도르프 학교는 교육예술을 추구함에 있어 신지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한다. 슈타이너는 신지학에서 인간의 본성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발도르프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목적은 영적 발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 영성 함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손 문 (2019). 국내 외국인 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습활동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0, 99-120.
- 신문철 (2012). 기독교적 상상력을 활용한 성서학습모델. **기독교교육논총**, 29, 87-122.
- 유은희 (2019). James. K. A. Smith가 제안하는 기독교교육 및 형성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60, 153-193.
- 이주형 (2016). 예술목회를 위한 영성수련: 상상적 관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6, 319-351.
- 이현철 (2016). 한국교회 청소년 수련회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기독교교육논총**, 47, 219-253.
- 정희영 (2017). 영지주의와 슈타이너의 인지학의 유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52, 107-147.
- Jaffke, F. (2000).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에서의 놀이와 직업**, 윤선영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91 출판)
- Petrash, J. (2018). **발도르프 교육 이해하기**. 강도은 역. 서울: 무지개다리너머. (원저 2002 출판)
- Querido, R. M. (2019). **발도르프 공부법 강의**. 김훈테 역. 서울: 도서출판 유유. (원저 1989 출판)
- Steiner, R. (1994). *Theosophie, einföhrung in übersinnliche welterkenntnis und menschenbestimmung*. (Trans Catherine E. C.), Theosophy: An Introduction to the Spiritual Processes in Human Life and in the Cosmos, MA: Anthroposophic Press.
- Steiner, R. (1996). *The education of the child and early lectures on education* (a collection), NY: Anthroposophic Press.
- Steiner, R. (2008). *The Essential Rudolf Steiner*. VA: Wilder Pub.
- Steiner, R. (2009). **기독교적 세계관**. 박병기·김민재 역. 경기: 도서출판 인간사랑. (원저 2007 출판)
- Steiner, R. (2015). **발도르프 학교와 그 정신**. 최혜경 역. 서울: 도서출판 밝은 누리. (원저 1998 출판)
- Steiner, R. (2016a). **신지학**. 양역관·다카하시 이와오 역. 서울: 물병자리. (원저 1994 출판)
- Steiner, R. (2016b). **요한복음 강의**. 양역관·다카하시 이와오 역. 서울: 물병자리. (원저 1997 출판)

Abstract

Understanding On the Theosophy of Rudolf Steiner

Won-Il Lee

Professor,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What means the Waldorf school based on integrative imagination to our educational reality in our days? This is the key question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seeks to the fundamental meaning of the Waldorf school to know our educational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plore understanding on the theosophy of Rudolf Steiner in the insufficient research until now. The theosophy of Rudolf Steiner in this article is investigated with the understanding of Triune God, human, and educational arts. The understanding of triune God is identified as the critiques to the view point of materialism, the meaning of logos in the scripture of John, the Christ as the foundation of all creatures.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is distinguished as the nature of body, soul, and spirit in the theosophy. Especially the nature of spirit is to see the invisible in the visible things through the eyes of mind that means esoteric spirituality not unrealistic spirituality of monasticism but integrative spirituality of overcoming the dualism between spirit and material.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integrative spirituality and imagination is called as the educational arts by Rudolf Steiner. The educational arts includes contents of the soul life, the education of freedom with individuality, and integrative education. The educational arts intends to the wholistic education with harmonious interaction of intellect, feeling, and willing to equip the individual human being in the spirit. And the educational arts educates with the harmony of story, play, art, and integrative curriculum of subject contents. The educational arts is to intend for reformation in

christian education including church school and alternative school, etc. The Waldorf school needs to emphasizing the 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educational arts.

《 **Keywords** 》

Theosophy, Spiritual self, Spiritual eyes, Imagination, Educational arts

- 투고접수일 : 2020년 05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25일